

여성 출가 허용, '양성평등' 의 시도

불교에서 여성의 위치

현대사회에서 '양성평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유사 이래 1천년 이상을 인류는 가부장제의 울타리 속에서 살아왔다. 종교 역시 이 같은 가부장적 틀 안에서 변주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성학자들은 일부 종교에서 여성이 동등한 위치의 성직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불교에서 여성의 위치는 어떻게 성립돼 왔을까? 고대 인도사회는 우주의 본질을 여성성으로 보는 토착민들의 세계관이나 문화적 성향, 그리고 아리안들의 현실적 가치관이 혼합돼 진여성적인 사회구조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현하기 직전의 인도사회는 아리안 문화가 점차 확산되고 바라문의 사회적 부상으로 사회구조가 계급화되면서 반여성적 인식 태도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바라문교가 사회 전반을 지배하면서부터는 상황이 심각해졌다. 당시 바라문 교권을 기반으로 쓰여진 <마누법전>을 보면 "여성의 자유는 어디에도 없다"고 명시돼 있다. 실제 남편이 죽을 경우 남편의 시신을 불에 태운 후 따라 죽어야 하는 '사티'라는 풍습마저 있었다.

하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이 문을 연 불교

는 이러한 시대 상황을 역행하는 종교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여성의 출가 허용이다.

이는 부처님과 아난의 대화를 보면 알 수 있다. 처음 여성의 출가를 허용하지 않는 부처님에게 아난은 "여성이 성불할 수 없는가"라고 묻는다.

이에 부처님은 "여자도 수행을 하면 남자와 마찬가지로 수다원과와 사다함과, 아

"여자도 수행을 하면"

깨달음을 증득할 수 있다

불교, 공성·연기론 통해

모든 존재 평등을 역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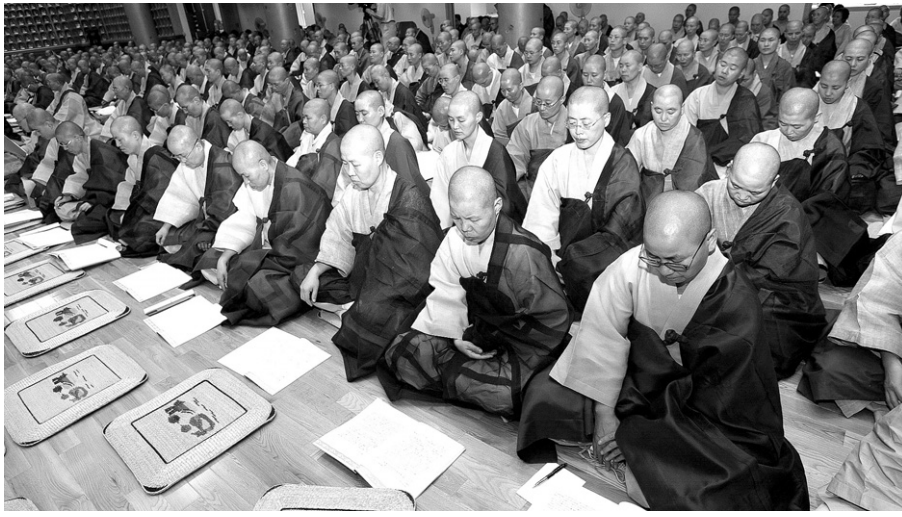
불멸 후 부처님 뜻 외면

나함과, 아라한과 등 4과(果)와 깨달음을 증득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여성들이 교단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했다.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인간으로 간주하고 여성들에게 출가를 허용한 것은 당시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부처님의 여성 출가 허용에 대해 서영애 씨는 자신의 저서 <불교의 여성관>에서

"불교는 당시 바라문교와 우파니샤드 철학



2003년 전국 비구니회가 개최한 '선 수행 특강'. 비구니 출가는 부처님의 평등적 인간관을 보여주는 단초다.

을 넘어 인간주의적이고 만민 평등 사상에 입각한 종교 사상을 피력했다"며 "당시 석가모니 부처님의 여성관은 상당히 시대를 앞선 것이며, 현대의 페미니스트적 입장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불교의 인간관은 연기성과 공성에 근원을 두고 있다"며 "이를 통해 부처님은 남을 위해 배려하고 자비를 행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임을 설파했다. 이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인간관, 여성관"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불멸 이후 1세기가 지나면서 서

서히 인도의 여성 차별 풍도가 강화됐고, 이는 불교 교단 내에서도 나타난다. 여성 차별적인 규칙과 계율경전에서도 생겨난 것도 이 시기라는 서영애 씨의 주장이다.

서 씨는 "당시 불교 교단이 세간의 통속적 흐름에 단순히 대처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속의 흐름에 따라가고 있었다"고 평가하며, "그래도 평등적 인간관과 여성관은 변하지 않아 비구니 교단이 비구 교단에 비해 관리를 받으면서 출가가 계속 허용됐다"고 말했다.

신종일 기자

여성, 치마·기복 불교 벗어나 지역사회 이끄는 리더로 급부상

여성 불자들의 신행 모임

한국불자의 대부분이 여성이지만 여성이라는 이름을 걸고 활동을 하는 단체는 많지 않다. 현재 가장 대표적으로 활동하는 곳은 불교여성개발원, 부산여성불자연합회, 부산불교여성포럼 등이 있다. 1990년 3월 김묘주 회장을 초대회장으로 창립된 불교여성단체 한국여성불교연합회가 있다. 가정폭력 상담 등 각종 교육 사업과 이혼예방센터 등을 운영 했으나 현재 활동이 저조하다.

5월 7일 불교여성개발원(회장 정경연)은 <승만경> 읽기 모임이 한창이었다. 조은수 서울대 교수가 지도하는 이날 모임에서는 승만보살 10대원 발원문 낭독을 시작으로 승만경의 여래장 사상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2010년 2월부터 시작된 승만보살 10대원 정진은 <승만경>을 대중화해 여성 불자의 자긍심 고취와 정체성 확립을 목적으로 진행돼 왔다.

조대 회장 이인자 교수는 "승만보살의 10대 원을 바탕으로 우리 여성 불자들이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2000년 창립 이후 '여성불자 108인'을 선정 포럼 개최, 출판, 리더십 교육 등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지혜로운 여성, 영 108인 등을 창립해 다양한 교육활동과 신행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여성전문 교육관을 개원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산여성불자회(회장 양선자)는 지난 5월 9일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실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올해로 창립 19년째를 맞고 있는 부산불자 연합회는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매년 청소년과 중장년층에 학인스님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부산여성불자회는 지난 1994년 창립 이래 매월 정기법회, 여성불자 자질향상을 위한 리더십 교육, 군과 교도소 포교,

장학금 수여와 환경보호 활동, 사찰순례와 사경법회, 여성 NGO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왕선자 회장은 "기복 신앙에서 한걸음 나아가 교육과 실천을 통해 여성불자들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지역사회에 봉사하고자 노력하는 단체"라며 불교 여성연합회의 창립 취지를 전했다.

능인선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부산불교 여성포럼(회장 윤정자)은 지난해 7월 창립 올 4월 첫세미나를 열었다. 윤정자 회장(부산 능인선원 신도회장)은 "부산이 불교도라고 하지만 기복 불교에 물들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부산 각계 여성 리더들을 모아서 매월 2회 교리공부를 하고 법문을 듣는 정기 모임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여불련-교육·상담·세미나
불교여성개발원-교육활동 풍성
부산여성불자회-지역사회 공헌
부산불교여성포럼-세미나 개최

지난 4월 23일 국제신문 소감당에서 개최된 부산불교여성포럼 제1회 세미나는 불교의 사회 참여와 사회적 역할을 재조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윤 회장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대승보살의 지혜를 배우고 불자로서 신심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여성 불자로서의 역할과 사명감을 깨달아 부산 불교를 한 단계 끌어 올리고자 마련한 세미나"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처럼 여성 불자들은 자신들의 모임을 통해 여성들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다양한 여성불자 모임들이 나와 여성 불교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정혜숙 기자

세계의 여성 불교 지도자

초기불교에서 최초의 여성 출가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모인 마하파자파티다. 부처님이 성도한 후 5년째 되던 해 마하파자파티가 출가했다. 이후 교단에서는 여성들의 출가가 이어졌다. 인도 여성 사회의 변화를 단적으로 증명하는 문헌이 바로 <장노니게(長老尼偈)>다. <장노니게>는 비구니 스님의 계승을 모은 것으로 부처님 재세 시부터 아소카 왕 시대까지 2-300년 간에 걸쳐 이뤄졌다. <장노니게>에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비구니를 포함해 73명 비구니 스님의 계승 522수가 수록돼 있다. 계승의 작자는 한 남자를 남편으로 했던 모녀도 있었고 가난한 집의 딸로 태어나 빛으로 인해 첩이 된 여성, 그리고 기생도 있었다.

부처님의 평등 정신은 불교가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도 그대로 적용됐다. 신라 법흥왕이 흥륜사(興輪寺)를 일으킬 때 그 왕비도 왕과 같이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어 영흥사(永興寺)를 개창했다.

다음 대인 진흥왕의 왕비도 비구니가 되어 영흥사에서 살았다. 이들 두 왕비의 행

적은 신라 여성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그로 인해 비구니가 되는 여성들이 많았다고 전해진다.

진흥왕 37년 안흥 법사(安弘法師)가 중국에서 가져온 <승만경>은 신라 여왕의 이름에 쓰일 정도였다. 승만 부인의 도덕성과 천부적인 변재는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로 꼽혔다.

선덕여왕, 황룡사 9층탑 건립

대행 스님, 국내의 마음공부 지도

대만불교는 비구니계가 교단 주도

신라의 여왕 세명 중 선덕여왕은 그 인품이 승만부인을 연상시킬 정도로 흡사했다고 전해진다. 황룡사 9층탑을 세우는 등 불교적 치세 이외에도 환과고독(鰥寡孤獨)을 위문, 구제하고 죄수를 사면하는 등 대승보살의 행을 펼쳤다.

전국비구니회에서 엮은 <한국 비구니의 수행과 삶>에 따르면 근현대 비구니 선맥



한국 법회 스님, 미국 쏘모 스님, 대만 증엄 스님, 미리암 레버링 교수

은 묘리당 법회(1887~1975)스님으로부터 시작된다. 법회 스님은 최초의 비구니 선원으로 개설된 경성암에서 수선 안거 중 깨달음을 얻었고, 만공 스님으로부터 법을 인가 받았다. 법회 스님은 1966년 이후 10여년 간 건성암 비구니총림 원장으로 주석하며 선종을 닦았다.

근현대 비구니계에서 국내외적으로 대중교화에 매진한 비구니 스님으로는 대행 스님이 있다. 대행 스님은 1971년 안양 석수동에 한마음선원을 세운데 이어 16개 국내지원을 개원했다.

또 해외포교에 원력을 세우고 1987년 미국 모건힐지원 개원을 시작으로 캐나다, 아르헨티나, 독일, 태국, 브라질 등지에 10개의 해외지원을 설립, 마음공부를 통한 행복의 길안내를 했다.

前 세계여성불자자연합회 회장 쏘모 스님은 1982년 티베트 불교에 귀의했지만 대만

으로 수계하러 가던 중 한국에서 구산 스님을 만나 계를 받았다. 前전국비구니회장 해춘 스님을 은사로 '해공'이란 법명과 비구니계를 받은 쏘모 스님은 현재 샌디에고 주립대학에서 불교학을 가르치며 세계여성 불자 연합회인 '사키야 히타(Sakyadhita)'를 설립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해외로 눈을 돌리면 대만불교에는 1만 5000명의 봉사회원과 400만명의 후원자를 보유한 자제공덕회 설립자 증엄 스님이 있다. 태국에는 담마난다 스님이 비구니 승가 재건 운동을 펼치고 있다. 담마난다 스님은 2003년 스리랑카에서 비구니계를 받기도 했다.

학계에서는 마르틴 베첼러, 미리암 레버링 등 여성 학자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다.

노덕현 기자



여성불자들이 모여 다양한 신행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7일 열린 불교여성개발원 승만경 모임 현장

佛紀 2557年 癸巳年 Buddha's birthday | '세상에 희망을 마음에 행복을'

무릇 생(生)하는 법(法)은 모두 멸망하는 법(法)이다. <울장 대품>

대한불교 관음종

송광정사

주지 진각

어린이 한자교실

토요스쿨 교육청 우수인증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졸업
-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육학박사과정 재학중
- 동방대학원대학교 2013학년도 원우회장

■ 부산시 연제구 거제3동 41-29 TEL 051)867-4564



대한불교 조계종 弘法寺



國際佛光會 韓國釜山協會



(사)한나래문화재단

주지 심산(深山)

■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구동 1220-1
TEL 051)508-0345 FAX 051)508-6561
홈페이지 www.busanbuddhism.com
E-mail : 5080345@hanmail.net



코모도호텔 부산을 비롯하여 코모도호텔 경주, 코모도호텔 포항 3개의 유��평채권을 운영하고 있는 코모도호텔 그룹은 가장 한국적인 유평채이며, 고객과의 30년 이상의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 만족 이상의 감동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코모도호텔에서 각종 높은 서비스와 편안한 휴식을 경험하십시오.

문의 및 예약 051) 466-9101

코모도호텔 부산 | 800-110 부산광역시 중구 영주동 749-89 TEL : 051) 466-9101 FAX : 051) 462-9101 www.commodore.co.kr
코모도호텔 경주 | 780-290 경북 경주시 신성동 410-2 TEL : 054) 745-7701 FAX : 054) 740-8349 www.commodorehotel.co.kr
코모도호텔 포항 | 780-829 경북 포항시 남구 송도동 311-2 TEL : 054) 241-1400 FAX : 054) 242-1534 www.commodorepoehang.co.kr